

NATO 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20만명 이상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겠다는 11월 8일자 美 국방부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나토 동맹국들은 모든 우발적사건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부시 대통령의 의도에 뜻을 같이 하였다.

현재 걸프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은 사우디 아라비아를 이라크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적절한 규모로 보이지만,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비록 병력의 신규배치로 인해 동맹국들이 공세를 취할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심각한 위협은 이라크의 침략에 대항한 세계의 단결된 행동이 망설임과 부적절한 상황으로 와해될수 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상황이 좋게 보인다. 美 육군 2개 군단과 1개 해병대가 배치되어 있어 미군 병력은 총 43만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걸프만 지역에 있는 동맹군들도 증강되고 있으며, 영국은 2번째의 장갑여단을 파견하기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맹국의 병력이 10만명을 상회하여 전체 병력수는 약 54만명에 이른다. 지상배치 공군과 3개 美 수송단 및 다른 함정들, 여기에 동맹군들의 해군 파견대들은 강력한 지원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첫째는 지휘조정문제이다.

비록 신규 배치로 인해 충분한 병력이 주둔하게 되어 전체 사령관으로서의 다양한 융통성을 가질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령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공동지휘에 관한 어떠한 공식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맹국중에서는 영국만이 자국 병력을 미국의 지휘하에 둘 것에 합의하였다. 비록 미국의 기여가 압도적으로 강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은 병력의 분산이 될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로는 혼란과 불필요한 병력손실을 초래할수 있다.

더구나 비록 동맹국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의 조치를 기꺼이 이해하면서 환영하고 있지만, 이 3개국외의 국가에서는 겨우 해군만을 형식적으로 배치했을 뿐이다. 특히 독일은 북해에서 지중해로 겨우 몇척의 함정을 이동시켰고, 자국군의 해외파병을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더욱 심상치 않은 것은 공격행동에 대한 일반의 지지도 약한 것 같다는 사실이다. 몇몇 동맹국 정치인들은 협상이 계속되어야 할것이라고 제의하였다. 사우디 관리들은 너무 강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희생이 국민들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어, 불확실한 목표로 인해 미국의 많은 인명손실이 있을수 있다는 가능성때문에 결의가 약화되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은 전체 미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이런 일을 행할 자격이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논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지기애 앞서 의회의 소집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매우 깊어지고 있어 사담 후세인으로서의 자신이 동맹국의 진영을 와해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수도 있을 것이다.*

후세인은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로 인해 서서히 이루어지는 압박효과보다 동맹국들의 급속한 의지력 약화가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계산할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후세인은 그가 승리하고 있다고 믿게될 것이며, 따라서 세계적인 규율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UN이 이룩한 단결과 막대한 병력의 배치가 쓸모없게 될 것이다. 침략과 약탈이 효과를 거둘 것이고, 사악(邪惡)한 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중동은 후세인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소련을 포함한 서방측의 영향력은 사라질 것이다. 아랍 우방들은 후세인과 화해를 해야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다.

또한 UN은 완전히 신뢰를 상실할 것이며,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향한 최근의 추세는 난관에 봉착하여, 이를 회복하는데는 수십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엄청난 패배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야 한다. 이룰수 있는 주요 원인은 2가지로서, 최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과 이에 따르는 불명확한 전략이다.

그러므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동의하였으면 끝까지 그것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장엄한 전략을 再考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조치는 여러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방위, 쿠웨이트 해방과 합법적인 통치자의 복귀, 공개적인 中東 석유시장의 보호, 독재자의 처형이나 체포, 이라크 군사잠재력의 파괴 등이 모두 언급되었다.

실제적으로는 이중 가장 마지막 사항이 핵심적인 것으로, 다른 모든 것은 후세인이 발휘할수 있는 힘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목적은 후세인의 무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의 달성은 충분한 군사력을 발휘하거나 강력한 무력을 과시하여, 실제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를 굴복시킴으로써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배치로는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불충분할 것이다. 작전이 개시된 이래 이라크의 군사력은 쿠웨이트의 남부국경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전선을 구축하였고, 공격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라크의 군대는 이란과의 8년 전쟁으로 전선을 고수하는데 상당한 경험을 쌓았으며, 진격해오는 동맹군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할수 있을 것이다.

후세인은 이라크가 이미 보여준 저지능력이 동맹군의 공격을 압도할 것이므로, 동맹군의 공격은 아마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파견부대가 다른 장소에 배치된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이 부대는 공격시 가장 강력한 방어에 맞부딪치는 지역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에 가장 위협을 줄수 있는 지점에 보내져야 할 것이다. 그 곳은 사우디는 아니다. 이미 상당한 군사력이 있는 곳을 강화하는 대신에 그 부대는 터키로 가야 할 것이다.

이 부대가 터키군과 연합한다면 후세인에게 엄청난 위협과 감당할수 없는 문제를 안겨줄 것이다. 후세인은 즉각적으로 군대를 분산시켜 북부지역을 강화하고, 그 지역의 방위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 방향에서 동맹군이 공격을 한다면 바로 이라크 영토내로 진입하게 되고, 동맹국이 구하려고 하는 쿠웨이트가 전장(戰場)이 되는 것을 피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르며, 그 중 첫째는 터키의 동의이다. 그러나 터키는 성실한 나토 동맹국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해 이미 지나친 희생을 치른 국가이다.

만약 전체적인 목적에 합의한다면, 필연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에 의한 실행이 요구된다. 터키의 지도부는 현실적으로 터키가 포기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것보다 승리함으로써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할수 있다.

터키의 모범은 다른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참여를 하도록 북돋울 것이며, 나토 깃발아래 작전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지휘체계가 어떠한 나토의 공동지휘부는 틀림없이 터키에 설치될 것이다.

전쟁은 망설임으로 이길수 없으며, 우리는 비록 총이 발사되지 않고 있더라도 우리가 전쟁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북부에 배치한다면 사실상 동맹군의 공격이 저항을 받지않게 될 것이므로 사담 후세인은 타협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이와 같은 전략이 최소의 희생과 최대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煥) <Miltech 90/12>